

사회이론

Society Theory

Vol. 25 no. 2, 2014

Korean Society for Social Theory

제25권

2호

이론적 탐구와 실천적 성찰을 위하여

불확실성 시대의 위험들과 정치에 대한 요구 증대: 루만의 사회체계이론의 관점에서 노진철
 루만의 사회체계이론으로 본 위기 주제의 사회적 기능 송형석·스벤 괴르너
 소통의 시대에 생각하는 불통(不通)의 사회학:
 니클라스 루만의 커뮤니케이션 개념, 그 사회이론적 함의에 대한 시론 천선영
 국내 인문·사회과학계의 니클라스 루만 연구: 수용 추이, 현황 및 과제 김중길

연구논문

비대칭 사회와 합리적 선택이론: 제임스 콜만의 사회이론 이재혁
 레이몽 부동의 '일상적 합리성이론'에 관한 시론 민문홍
 허버트 스펜서의 복지국가론 조영훈
 정의와 다문화주의: 키피카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의 사용 최종렬
 일상의 해부를 위한 앨리 흑실드의 개념 도구 탐색: "감정노동"부터 "아웃소싱 자아"까지 함인희
 한국 사회학의 위기의 원인과 처방에 대한 이론적 논의 김우식
 사회과학 공동 연구 수행에 대한 연구자의 경험 및 인식:
 SSK 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김대환·이승철·류도암

서평

비서구 민주주의를 새롭게 읽는 법 정수복



값 15,000원

사회와 이론 편집위원회

위원장 / 김종길

위원 / 김우식, 최우영, 김홍중, 박수호, 신중화, 이철승, 이해경, 장용석, 조주은

사회와 이론

한국이론사회학회

통권 제25집

2014년_2호

사회와 이론 2014년_2호(통권 제25집)

펴낸날 / 2014년 11월 30일

엮은이 / 한국이론사회학회

펴낸이 / 강동권

펴낸곳 / (주)이학사

등록 / 1996년 2월 2일 (등록번호 제03-948호)

주소 / 서울시 중로구 윤보선길 65(안국동 17-1) 우 110-240

전화 / 02-720-4572 · 팩스 / 02-720-4573

이메일 / ehaksa@korea.com

© 한국이론사회학회, 2014. Printed in Seoul, Korea.

ISSN 1598-6500-25

* 책값은 뒤표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학사

루만의 사회체계이론으로 본 위기 주제의 사회적 기능*

송형석·스벤 쾨르너**

[국문 초록]

위기는 사회에서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소통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제한적 공명력을 지닌 사회의 기능 체계들이 위기 주제에 대해서만큼은 예외적으로 적극적으로 동조한다는 사실이다. 연구자는 위기 주제가 문제의 속성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의 속성도 지니기 때문에 사회의 기능 체계들이 그것에 강한 친화성을 나타내고 쉽게 동조한다고 주장한다. 한편으로 위기는 사회 구성원 다수에게 높은 당혹감을 불러일으키고 관심을 집중시키도록 만드는 문제로서 나타난다. 위기는 의미의 사태 차원에서 당위와 사실의 가치 차이로서 양적인 것, 수치의 비교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며, 시간 차원에서 결정과 행위의 긴급성을 알려주고, 사회 차원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위기 소통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로서 위기의 확실성과 함께 그 해결 가능성의 불확실성이 드러난다. 문제의 확실성과 해결 전망의

* 이 논문은 2013년 후기 한국사회학대회(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니클라스 루만으로 본 위기 주제의 사회적 기능」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당시 원고 초안을 읽고 여러 가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동양대학교의 이철 선생님과 토론자로 참여하여 좋은 토론을 해주신 중앙승가대학교의 유승무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아울러 줄고에 대한 과분한 평가와 세밀한 지적, 그리고 건설적 비판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 송형석[공동(제1)]·스벤 쾨르너[공동(참여)]

불확실성 사이에서 불안감이 증폭하고, 소통은 역동성을 띠게 된다. 위기는 이렇게 사회 구성원 다수에게 당혹감과 불안감을 조장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한 결정과 행위를 강요하며, 사회의 기능 체계들에서 이에 관한 소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다른 한편으로 위기는 사회의 존속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책으로 기능한다. 사회는 소통이며, 소통은 나타나는 순간 사라지는 사건이다. 사회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후속 소통이 이어져야만 하며 소통의 자기생산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소통의 자기생산을 보장해주는 것은 구조이며, 주제가 그 기능을 한다. 주제는 기여를 조건 지어주고, 기여는 주제를 조건 지어주는 방식으로 소통 과정을 역동화시켜주며, 기여들을 관련 있는 복합체로 정리해주고, 소통의 기억을 조직하며, 후속 소통을 사태적, 사회적, 시간적으로 선택하고, 특정 기여에 대한 기대를 형성시켜주어 지속적 소통의 불확실성을 완화시켜주며, 체계들이 구조적으로 접촉될 수 있도록 매개함으로써 소통의 자기생산을 보장해준다. 이렇게 주제는 사회의 존속, 소통의 자기생산에 필수적 요소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순식간에 교체될 수 있는 주변적 요소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는 충분히 조달되어야만 한다.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은 모두 주제거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체계 내의 주제로 전환되는 일은 결코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소통 체계들은 주제의 선택에 매우 까다로우며 환경의 사건들, 주제가 될 수 있는 대부분의 주제거리에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맥락에서 위기 주제는 예외를 지칭한다. 위기 주제는 당혹감을 유발시켜 이목을 끄는 그 문제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체계 주제로 쉽게 선택되고 체계들의 무관심 문턱을 쉽게 넘어서기 때문이다. 이렇게 체계의 소통 주제로서 위기는 후속 기여들, 즉 후속 소통의 접촉을 역동적으로 촉진시켜줌으로써 사회의 존속 문제를 해결해준다. 위기 주제는 이와 같이 문제적 속성과 문제 해결적 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다수 기능 체계들에게 쉽게 주목받으며, 빈번하게 소통 대상이 된다. 체계이론적 관점에서 실재는 관찰의 실재이고, 소통의 실재이기 때문에 관찰되고 있는 위기, 소통되고 있는 위기는 사회에서 실재하는 위기로 나타난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위기의 관찰, 위기의 소통이 일어나는 정도만큼, 위기의 실재도 많아진다. 이것이 현대사회에서 '위기'가 범람하는 이유이다.

주요 단어: 니콜라스 루만, 자기생산, 소통, 위기, 주제

1. 시작하는 말

우리는 위기¹⁾가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주변을 관찰해보면 경제 위기, 교육 위기, 환경 위기, 인문학 위기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위기들이 산재해 있다. 현대사회에서 위기의 대표적 발원지는 대중매체이다. 신문이나 TV 뉴스는 주제화되지 않던 '위기'를 주기적으로 다시 살려내거나, 새로운 '위기'를 생산해내고 있다. 영화와 드라마도 미래의 가상적 재앙이나 재난을 주제화함으로써 사회의 위기 담론을 풍성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매체만이 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정치, 경제, 교육 같은 사회의 주요 기능 체계들도 대중매체의 보도에 동조하면서 보도된 위기, 관찰된 위기를 기정사실화하고 그 해결 방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여를 쏟아내고 있다.

사회에서 그리고 사회의 주요 기능 체계들에서 위기가 회자되고 있는 만큼 위기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 넘쳐난다. 학문적 관찰자의 위기 관찰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위기가 그것을 관찰하는 관찰자와는 무관하게 '저 밖'에 실재한다고 믿고, 그 실태와 원인을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학문적 관찰이 있다. 이들은 위기를 측정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박춘서, 2012: 178). 사회학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 경향을 객관주의적 위기 연구로 지칭한다. 공교육의 위기와 그 극복 방안(유상덕, 2001; 한미라, 2009)을 논의하는 교육 위기 담론, "글로벌 금융 위기의 원인과 대책"(장경훈, 2009) 같은 경제 위기 담론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1) 여기서는 위기와 위험을 구별하지 않을 것이다. 현실 세계에서 위기의 의미가 위험을 대체하는 경우가 자주 있고, 위기와 위험의 경계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주로 위기를 사용할 것이다.

관찰의 결론은 관찰자가 위기의 관찰에 투입한 구별을 통해 구성된 위기를 객관적 실재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위기를 구성의 산물로 보고, 그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 구성되는지 추적하는 연구들이 있다. 최근 등장하고 있는 사회과학적 위기 연구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노진철, 2004; 하대청, 2011; 송해룡·김경희, 2012; 박춘서, 2012). 이 연구들은 위기를 관찰하는 관찰자가 어떻게 관찰하는지, 즉 위기 관찰의 순간 어떤 구별을 투입하고, 구별의 양면 중 어떤 면을 지칭하는지 관찰하며, 이러한 관찰을 통해 위기가 관찰자에 의해 구성된 고유한 구성물이라는 점을 밝혀낸다. 사회학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 경향을 구성주의적 위기 연구로 표현한다. 이 논문은 구성주의적 위기 연구의 입장에 서있다. 그러나 구성주의적 위기 연구가 지금까지 소홀하게 다루었던 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논의와 차별화될 수 있다.

위기에 관한 지금까지의 구성주의적 연구가 주로 ‘위기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또는 ‘사회적 관찰자들(소통들)이 위기를 어떻게 관찰하는가?’라는 물음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 연구는 ‘왜 위기가 그렇게도 빈번하게 구성되는가?’, ‘위기라는 주제는 왜 그렇게도 자주 사회적 기능 체계들의 관찰 대상이 되었을까?’라는 물음에서 출발한다. 지금까지의 위기 연구들은 이 점에 의문을 갖지 않았으며 위기의 기능적 분석을 소홀히 다루어왔다. 예컨대 노진철(2010)은 루만(Luhmann)의 사회체계이론을 이론적 자원으로 삼아 위기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바 있는데 그의 연구 관심은 ‘현대사회에서의 위험이란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보다 적합한 사회학적 이론 자원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저서 『불확실성 시대의 위험사회학』(2010)에서 먼저 현대사회의 위험이 주제화되는 국면과 관련하여 기존의 행위이론적 시도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그것

이 우연성, 선택, 결정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명확히 드러내주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루만의 사회체계이론에 기대어 위험에 대한 사회학적 이론의 보완을 시도한다. 그는 위험 소통에서 시간, 사회, 사태 세 가지 의미 차원이 동시에 실현되는 과정과 사회체계가 처한 위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세 차원 중에서 이 차원 혹은 저 차원이 더 큰 주목을 받기도 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노진철의 연구는 매우 방대한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음에도, 각 기능 체계들에 의해 전개되는 위험 소통의 자기생산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으로써 위기 주제 자체에 대한 관심, 위기가 그렇게도 자주 기능 체계들에 의해 주제화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저자들은 이에 착안하여 현대사회에 위기가 만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다. 다시 말해 특정한 것에만 배타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다른 것에는 무관심한 사회적 기능 체계들이 위기에 대해서만은 예외적으로 큰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 이유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저자들은 루만의 사회체계이론에 기대어 이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 논의는 다음 절차로 진행될 것이다.

첫째, 주제는 사회의 생성과 존속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구조라는 점을 설명할 것이다. 부연하자면 루만의 의미에서 사회는 소통이며, 소통은 나타나는 순간 사라지는 사건이다. 따라서 사회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소통에 소통이 연속해서 접속되어야만 하는데, 구조는 이와 같은 접속을 보장해주는 체계의 내부 기제이며, 주제가 이와 같은 구조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다(II장).

둘째, 주제는 특히 정리 기능, 기억 기능, 선택 기능, 불확실성 완화 기능, 구조적 연동 기제 기능 등 여섯 가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소통에

후속 소통의 접속을 보장해준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다(III장).

셋째, 주제는 체계의 생성과 존속에 필수적 요소이고(경우에 따라서 교체될 수 있는 주변적 요소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환경에는 수많은 주제가 비축되어 있지만, 환경에 속한 주제, 따라서 아직 소음에 불과한 주제거리가 특정 체계의 주제로 전환되는 일은 결코 개연적이지 않는다는 점을 기능 체계들의 제한된 공명 능력(begrenzte Resonanzfähigkeit)과 관련지어 설명할 것이다. 아울러 위기 주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에서 질서로” 쉽게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외적인 경우를 지칭한다는 점을 부연 설명할 것이다(IV장).

마지막으로 위기 주제는 그것이 지닌 ‘문제적 속성’과 ‘문제 해결적 속성’이라는 이중적 성격에 의지하여 “소음에서 질서로”, 다시 말해 환경 소음에서 체계 주제로 비교적 쉽게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다. 즉 위기 주제는 의미의 사회 차원에서 사회 구성원 다수에게 해당되며, 시간 차원에서 결정과 행위가 지체되어서는 안 되는, (사태 차원에서) 사실과 당위의 불일치 문제일 뿐만 아니라(문제적 속성), 그것이 지닌 역동성에 근거하여 존속이라는 사회의 중심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문제 해결적 속성) 각 기능 체계들의 맥락에서 높은 공명 잠재력을 지닌다는 점을 설명할 것이다(V장).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사회와 그 기능 체계들에서 위기가 그렇게도 자주 소통되고 있는 이유, 일상적 용법으로 표현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위기 담론이 범람하는 이유가 해명될 것으로 기대된다.

II. 구조로서 주제

1. 소통의 자기생산 기제로서 구조

전통적으로 사회는 인간으로 이루어진 집단이나 영토적 경계로 이루어진 특정 구역을 의미했다. 그러나 루만은 이와 같은 인본주의적 사회 이해나 영토주의적인 사회 이해와 결별한다. 그는 이와 관련하여 “휴머니즘적 사회 개념이나 지역주의적(민족 중심적) 사회 개념은 이론적으로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다.”(루만, 2012: 49)고 하였으며, 그런 이유에서 “철저하게 반휴머니즘적이며 철저히 반지역주의적인 …… 사회 개념으로의 이행을 도모”(루만, 2012: 53)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렇다면 루만에게 있어서 사회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는 소통²⁾ 체계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회는 소통의 사슬로 이루어진 소통 사건의 연쇄이다. 사건으로서 소통은 모든 사건이 그러하듯 발현되는 순간 사라지는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후속 소통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야만 존속할 수 있다. 후속 소통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 소통은 중지될 것이며, 이는 곧 사회 존속의 중지를 의미한다. 소통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후속 소통의 접속이 부단히 계속되어야만 한다. 루만은 이와 관련하여 “사회체계의 경우 자기생산은 그저 후속 소통을 염두에 두고 소통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할 뿐”(루만, 2012: 514)이라고 하였다.

소통에 후속 소통이 접속하는 것은 소통의 자기 지시(Selbstreferenz)이며, 동시에 소통의 자기생산(Autopoiesis)이다. (후속) 소통이 (선행)

2) 루만에게 있어서 소통 역시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정보를 전달한다는 기존의 이해와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소통은 정보, 전달, 이해라는 세 종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며 사회의 최소 단위이다.

소통을 지시하기 때문에 소통의 자기 지시이고, 이를 통해 새로운 (후속) 소통이 계속해서 생산되기 때문에 소통의 자기생산이다. 루만은 이와 같은 체계의 자기생산적인 운동을 작동(Operation)으로 표현했다. 루만은 생명체의 존재 이유가 생명 작동의 반복을 통해 자기생산적으로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듯이, 사회의 존재 이유 역시 고유한 작동의 반복을 통해 자기생산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³⁾

만일 사회와 그 개별 소통 체계들의 중심 문제가 존속의 문제이고, 존속 문제의 본질이 그 기초적인 체계 작동의 지속 가능성에 있다면, 소통의 지속적인 자기생산을 보장해주는 기제는 어떤 것일까?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사회에서 순환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소통의 재생산과정을 관찰해 보자. 이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한편으로 자기생산, 다른 한편으로 체계가 자신의 자기생산을 실행하도록 해주는 구조”(Luhmann, 1995: 16)의 구별을 만날 수 있다. 이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루만은 소통이 적절한 후속 소통과 접속되도록 하여 자기생산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기제를 ‘구조’로 보았다. 이에 대해 루만의 말을 들어보자.

사회체계의 경우 자기생산은 다양한 구조 아래서 일어날 수 있다. …… 구조가 있어야 작동으로부터 작동으로의 진행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합한 후속 작동의 기능 범위를 좁힐 수 있기 때문이다. 구조는 필수적인 복잡성 축소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루만, 2012: 514~515).

3) 김홍중(2012: 449)은 『쉽게 읽는 루만』(베르크하우스, 2012) 리뷰에서 이와 관련하여 “생명의 목적이, 유기체의 텔로스가 무엇인가? 없다. 굳이 있다면 계속 삶을 이어가는 것이 목적일 뿐이다. …… 그렇다면 사회적 체계는? …… 사회적 체계는 자신의 요소인 소통을 계속 이어감으로써, 자신에게 고유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스스로를 재생산하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라고 썼다.

위의 진술에는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소통의 자기생산에 기여하는지 잘 나타나 있다. 구조는 하나의 소통이 다음 소통으로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적절한 후속 소통의 가능 범위를 좁혀주어 복잡성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소통의 자기생산에 기여할 수 있다. 즉 구조는 특정 소통의 접속을 예측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주고 다른 소통의 접속을 배제시키면서 체계의 자기생산에 기여한다. 그런 의미에서 구조는 “계약에 대한 제약(Einschränkung von Einschränkung)”이며 “계약의 선택(Selektion einer Einschränkung)”이다(Luhmann, 1984: 387). 구조는 계약을 통해 체계를 형성시켜주고 선택을 통해 체계를 유지시켜준다. 결국 구조는 소통의 자기생산과정에서 체계 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택으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구조는 이와 같은 선택 기능을 통해 접속 소통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어간다.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보자. 루만의 체계이론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구조인가?

2. 구조로서 주제의 이중적 성격

루만(Luhmann, 1984: 216)은 “소통이란 전형적으로 주제를 통해 통제되는 과정(ein durch Themen gesteuerter Prozeß)”이라고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통의 주제는 체계를 유지시켜주고 형성시켜주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사회체계들의 자기생산이 지속되어야만 한다면 필수적으로 주제가 있어야만 한다. “주제는 모든 소통의 구조로서 전체 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Luhmann, 1970: 7)

우리는 소통이 주제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을 작동/관찰 구별의 틀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통을 관찰할 경우 소통된다는 점(작동)만이 아니라 소통되고 있는 것(관찰)도 드러난다. 예를 들면 대중매체 소통

을 관찰할 경우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소통이 계속해서 자기 지시적으로 자기생산되고 있다는 점(작동)뿐만 아니라 이 소통이 “학교 폭력” 같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관찰)을 볼 수 있다.

사회에서, 사회의 수많은 기능 체계와 조직에서, 사교적 대화에서, 슈퍼마켓 계산대 앞에 길게 늘어선 대열에서, 또는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는 동료들 사이에서 수많은 주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부단하게 현행화(Aktualisierung)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제에는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 가벼운 것에서 진지한 것, 사소한 것에서 중요한 것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것이 속해 있다. 이런 의미에서 루만(Luhmann, 1970: 7)은 주제를 “다소간은 규정되지 않았지만 발달 가능성이 있는 지칭된 의미 복합체, 즉 그것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같거나 다른 견해를 지닐 수 있는 그런 의미 복합체(Sinnkomplexe)”로 정식화하였다.

이 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제는 ‘지칭’되었다는 점에서 규정성을 지니며, ‘규정되지 않았고 발달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규정성을 지닌다. 다시 말해 한편으로 지칭된 의미 복합체로서 주제는 언제나 지칭된 특정 내용에 관한 주제라는 점에서 규정성을 지닌다. 예컨대 그 의미가 다분히 포괄적인 “날씨 일반”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추워진 날씨” 같이 특별히 규정된 내용이 주제가 될 수 있다.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관찰하는 소통 체계들은 특정 주제를 선택함으로써 각기 고유한 정보를 만들어낸다. 주제의 선택은 필연적으로 정보의 차이로 이어진다.

다른 한편으로 주제는 아직 그 내용이 분명하게 규정되지 않았으며, 다양한 방식의 논의에 열려 있고, 그런 의미에서 발달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규정성을 지닌다. 예컨대 주제는 그 주제에 대한 다양한 기여에 열려 있으며, 주제에 대한 특정 기여가 생겨났을 경우 이것은 자신을 보충하거나 계승하거나 인증하거나 거절하는 후속 기여들의 계기가 될 수 있고, 이 후속 기여 역시 다시금 자신을 보충하거나 계승하거나

나 인증하거나 거절하는 새로운 후속 기여들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⁴⁾

주제의 발달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이 과정이 재귀적으로 순환되면서 주제는 소통 체계의 중요한 요구 사항인 체계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다. 한마디로 주제는 연결을 가능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사회, 즉 소통 체계의 존속에 기여한다. 체계의 존속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연결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루만(Luhmann, 1984: 62)은 “자기생산적 체계들의 이론과 관련하여 하나의 기초적 사건이 어떻게 다음의 기초적 사건으로 연결되는지 궁금하다. 근본 문제는 …… 연결 능력에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니클라스 루만의 체계이론”이라는 주제는 접속들의 선택과 배제를 통해 이 주제에 관한 소통 체계를 형성시켜주고 유지시켜준다는 점에서 구조로 기술될 수 있다. 주제는 자신으로부터 이어지는 기여들의 필연성을 생성하고 지속시키는 담론적 에너지를 지니며, 그런 한에서 소통의 자기생산을 보장해주는 구조이다.

III. 주제의 기능

소통은 주제를 다룰 뿐만 아니라 주제에 의해 조절되고, 정렬되며, 역동적이 되고, 기대 가능하게 된다(Kieserling, 1999). 이는 주제와 기능이라는 후속 구별의 결과이다. 루만(Luhmann, 1995: 113)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소통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최종적으로 자기생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통의 주제와 기능이 구별되어야만 한다.” 주제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4) 체계 주제의 규정성과 미규정성은 체계 생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경의 복잡성 감축과 체계 고유의 복잡성 구축에 상응하는 특징이다.

기능을 통해 소통이 자기생산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첫째, 주제는 소통을 진행시켜주는 과정 기능을 한다. 과정의 특징은 “연결 추구(Anschlußsuche)”(Luhmann, 1984: 388)이다. 주제가 과정 기능을 한다는 것은 기여들(Beiträge),⁵⁾ 즉 접속 소통들의 개연성을 높여준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루만의 말을 들어보자.

소통이 도대체 어떻게 과정이 될 수 있을까? 여기서 다시금 특별한 기능 특수적 차이, 즉 주제와 기여의 차이가 기능성의 조건으로 기능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소통연관은 주제에 대한 기여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주제를 통해 질서 지워져야만 한다(Luhmann, 1984: 213).

루만의 말처럼 주제는 기여를 조건 지어주고, 기여는 주제를 조건 지어줌으로써 주제는 소통을 역동적으로 만들어주며, 과정으로 만들어준다. 예를 들면 학문적 소통에서 “루만의 사회체계이론”이란 주제를 다룬 논문이나 저서가 발표되었다면, 이것은 다시금 이 주제를 다루게 될 또 다른 논문이나 저서의 출현을 촉진함으로써 이 주제의 사회적 존속에 기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주제가 기여를 조건 지어주고, 기여는 다시금 주제를 조건 지어주는 순환 관계에 기초하여 소통은 역동적으로 전개된다. 주제와 기여의 차이는 매체와 형식의 차이에도 상응한다. 느슨하게 접속된 요소들의 단위로서의 매체는 긴밀하게 접속된 요소들의 단위로서의 형식들의 기입을 가능하게 하며, 형식은 다시금 새롭게 이어질 형식을 형성시켜주는 매체가 된다(정성훈 미간행,

5) 여기서 기여는 선행 소통에 접속을 시도하는 후속 소통을 의미한다. 소통은 그것에 접속을 시도하는 소통과의 접속을 통해서만 존속될 수 있다. 이처럼 접속을 시도하는 소통은 소통의 존속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여라고 축약시켜 표현할 수 있다. 갑과 을 두 의식 체계의 상호작용에서 갑의 입론에 대한 을의 반박이 기여이다. 발표된 학술 논문에 대한 반박 논리를 담고 있는 다른 학술 논문 역시 학문 소통에서 기여라고 할 수 있다.

2009: 75~79). 주제와 기여의 순환적 관계는 구조와 작동의 순환적 관계에도 상응한다. 이에 대해 루만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체계는 구조와 작동의 자기 지시적이며, 순환적인 관계를 실행한다. 체계는 자기 자신의 작동을 통해 구조를 산출하는데, 그 작동은 구조가 후속 작동을 확정할 때 조절작용을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Luhmann, 1997: 439; 루만, 2012: 516) 이상에서 보았듯이 주제는 후속 작동, 즉 접속 소통을 확정해주고, 접속 소통은 다시금 주제의 존속을 가능하게 해주면서 소통이 자기생산을 계속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둘째, 주제는 정리 기능을 한다. 정리 기능은 일련의 소통들(기여들)을 서로 관련 있는 복합체로 묶어주고 정리해주는 기능을 말한다. “주제는 기여들을 같은 종류의 복합체로 묶어줌으로써 진행되고 있는 소통에서 특정 주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지속되고 있는지 아니면 교체되었는지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Luhmann, 1996: 28; 루만, 2006: 15) 이렇듯 루만의 체계이론에서 주제는 서로 다른 기여들의 통일, 즉 동일한 주제를 지시하는 소통이 정리되고 조직되도록, 포함 효과를 발휘하는 의미 묶음을 지칭한다. 학문 소통에서 학술 세미나, 학술 심포지엄, 출판물 등은 주제에 기반하여 형성된 체계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주제는 기억 기능을 한다. 기억 기능은 정리 기능의 결과이다. 주제에 기반하여 일관된 의미 단위들이 묶여지고(정리 기능), 묶인 의미 단위들은 주제에 사회적 기억으로 저장된다. 이런 의미에서 루만은 “주제는 소통의 기억을 조직한다.”(Luhmann, 1996: 28; 루만, 2006: 15)고 하였다.⁶⁾ 일관된 의미 단위들의 묶음인 주제가 있기 때문에 소통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다. 소통은 특정 주제와 관련된 의미 단위들의 묶음을 단지 내려놓거나 다시 취하는 방식으로 자기생산을

6) 물론 루만은 역설적이게도 “기억의 주요 기능은 …… 망각에 있다.”(Luhmann, 1997: 579)고 하였지만 망각 자체는 기억되어야만 한다.

지속해나갈 수 있다. 주제의 기억 기능은 구술 문화에서 문자 문화로 전환되면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넷째, 주제는 선택 기능을 한다. 선택 기능이란 후속 소통의 진로를 선택적으로 제한하고 규제하는 기능을 말한다. 주제는 후속 소통의 우연성과 임의성을 사태적, 사회적, 시간적 차원에서 선택적으로 규제한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한 사교 모임의 참석자들 사이에서 ‘루만의 사회체계이론’을 주제로 한 소통이 출현했다면, 이 주제는 소통이 이것을 충분히 다루어 더 이상 다룰 필요가 없게 되거나 다른 이유에서 다른 주제로 교체되기 전까지(시간 측면), 예컨대 축구나 날씨 같은 평범한 주제로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며(사태 측면), 루만의 사회체계이론에 문외한인 자의 즉흥적인 기여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사회 측면). 이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주제는 축구나 날씨가 아니라 ‘루만의 사회체계이론’(사태적 차원)을, 문외한이 아니라 체계이론 전문가(사회적 차원)를, 다른 때가 아니라 지금(시간적 차원)을 선택하도록 만들어 줌으로써 소통의 자기생산을 보장해준다. 이와 같은 주제의 선택 기능과 관련하여 루만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제는 기여를 배제한다. 이를 통해 기여자들도 배제한다.”(Luhmann, 1984: 213) 이렇듯 주제는 사태적, 시간적, 사회적 차원에서 선택적으로 특정한 접속들을 기대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주고, 다른 접속들을 배제시킴으로써 소통의 자기생산에 기여한다.

다섯째, 주제는 불확실성을 흡수(Absorbierung der Unsicherheit)하는 기능을 한다(Luhmann, 1970: 9). 이 기능은 선택 기능의 결과이다. 즉 주제는 아무 기여나 임의적으로 접속하도록 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특정한 종류의 기여만 접속하도록 선택함으로써 특정 기여에 대한 기대를 형성시켜준다. 루만은 다음의 예에서 주제를 통해 임의성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만일 쥐를 쥐덫으로 잡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아닌지가 관건인 경우에 수많은 기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임의적인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이 주제를 통해 사전에 충분히 자기의 기여들을 재빨리 선택하고 타자의 기여의 적합성을 통제할 수 있도록 방향이 정해진다. 쥐들이 걸게 될 고통을 근거로 참가자들의 도덕적 감수성이 검토될 수 있고, 만일 한 사람에게는 당연하지만 나머지 참가자들에게는 충분히 논의되었다는 인상이 들면 주제가 바뀔 수 있다(Luhmann, 1984: 216).

이렇듯 주제는 소통이 지속되도록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임의성 제한을 통해 소통이 어떤 방식으로 지속되어야 하는지 규정해준다는 점에서 소통에 구조를 부여해준다고 할 수 있다(Luhmann, 1970: 9). 주제는 소통에 구조를 부여함으로써 그것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후속 소통의 불확실성을 완화시켜준다.

여섯째, 주제는 여러 기능 체계 사이에서 구조적 연동(strukturelle Kopplung) 기제의 기능을 담당한다. 주제는 흥미를 유발시키는 관점을 형성한다. 기능 체계들은 이러한 관점을 매개로하여 비교적 지속적으로 접속한다. 예를 들면 스포츠에서의 도핑(doping)은 사회의 다수 기능 체계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키는 주제이기 때문에 기능 체계들은 이 주제를 매개로 구조적으로 접속한다. 이런 의미에서 쉬망크(Schimank, 2000: 130)는 주제로서 도핑이 다수 기능 체계들을 구조적으로 접속시켜주는 연결 고리라고 하였다. 구조적 연동은 접속된 체계들 간의 지속적 교란가능성을 의미하며, 교란은 해당 체계 내부에서 새로운 기여들을 촉발시킴으로써 소통의 지속적 자기생산에 기여하게 된다. 한편 구조적 연동과 관련하여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다수의 기능 체계들이 같은 주제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관찰한다고 해서 모두가 동일한 방식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각 기능 체계들은 고유한 기능과 코드에 근거하여 관찰하기 때문에 주제는 기능 체계들에

따라 서로 다르게 다루어진다. 대중매체와 스포츠 과학은 도핑이라는 주제를 서로 상이한 방식으로 다루며, 법적 또는 정치적 소통 역시 대중매체나 스포츠 과학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주제를 다룬다 (Bette & Schimank, 1995).

이상에서 보았듯이 주제는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 소통의 자기생산을 보장해준다. 소통이 진행되는 곳에는 항상 주제가 있어야 한다. 소통은 항상 '어떤 것(주제)'에 관한 소통이기 때문이다. 주제가 없다면 소통도 없다. 이런 의미에서 주제는 소통의 존속을 유지시켜주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IV. “소음에서 질서”로 전환의 비개연성과 예외로서 위기 주제

1. “소음에서 질서”로 전환의 비개연성

앞 장에서 보았듯이 주제는 소통의 중심적 요소이다. 그러나 주제는 주변적 요소이기도 하다. 주제는 경우에 따라서 그 기능적 등가물인 다른 주제로 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제는 소통에서 핵심이 되는 것의 부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필요할 경우 대체될 수 있는 주변적인 계수이기도하다. 주제는 비약적인 주제 교체를 용인하는 고도로 분화된 생각을 가능하게 하며, 순식간에 더 이상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 주제로 되돌아가는 것을 유보하게 할 수도 있다(Luhmann, 1996: 181; 루만, 2006: 140).

위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주제는 특정한 시점에 이르러 더 이상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일시적으로 잊혀지고, 곧바로 그 기능적 등가물인 다른 주제로 대체된다. 사례를 들어보자. 사회의 기능 체계들은 대중매체에서 소통되고 있는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자식’이라는 주제를 관찰하고, 채 총장이 지휘해왔던 ‘국정원 선거 개입’ 관련 대화를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제시된 자료에 근거하여 ‘보도의 진위 여부’나 ‘검찰총장의 도덕성’을 주제로 소통을 재개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주제는 순식간에 교체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주제가 충분히 조달되어야 한다. 그러나 소통 체계들에게 있어 주제의 조달은 결코 쉽게 일어나지 않는 비개연적 사건이다. 왜 비개연적인가? 체계들은 제한된 공명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 사회적 체계의 관점에서 볼 때 환경은 수많은 주제거리가 비축되어 있는 저장고이다. 이 주제거리들은 이미 다른 사회적 체계들에게 주제이지만 이 체계에게는 가능성일 뿐 아직 주제가 아니다. 환경의 사건들은 이 체계에 의해 주목받지 못했고 그것의 내부에서 구별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⁷⁾ 환경 사건들이 특정 사회체계의 주제가 되려면 그 체계의 내부에서 교란으로 고려되고 구별을 만들어야만 한다. 이와 관련하여 루만(Luhmann, 1987: 183)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환경의 사건들과 환경의 변화들은 여전히 ‘소음’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그것이 체계 내부에서 공명을 발견할지의 여부는 체계의 내부 구조에 달려 있다.”

환경에 속해 있는 것들, 장차 주제로서 주목받을 가능성을 지니지만

7) 환경에 비축되어 있는 주제들은 특정 사회체계에게는 소음이지만 다른 사회체계에게는 주제일 수 있다. “사회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 것(주제: 역자주)의 명확한 경계는 이해될 수 있는 것이거나 소음”(Luhmann, 2008: 43; 루만, 2002: 56)이다.

아직은 주목받지 못한 환경의 사건들은 일단 체계에게 소음으로 등록된다. 이 소음이 체계 내부에서 공명을 발견할지, 구별을 만들어낼지, 의미 있는 정보나 주제로 다루어질지의 여부는 체계가 자신의 내부 구조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루만(Luhmann, 1984: 150)은 소음에 불과한 환경의 사건이 체계의 주목을 받아 소통 주제로 전환되는 과정을 퍼스트(H. v. Foerster)의 표현 방식을 빌려 “소음에서 질서(order from noise)”라고 하였다.

“소음에서 질서”로의 전환은 대단히 비개연적인 사건이다. 사회의 기능 체계들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교란과 방해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반응하고, 고도로 선택적으로 처신하기 때문이다. 사회의 기능 체계들은 각자 고유한 내부 기준에 따라 소통 주제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제한적인 공명 능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기능 체계들은 환경의 모든 사건에 무관심하며, 아무것이나 체계 내 주제로 삼지 않는다. “단지 매우 적은 것들만이 현행적으로(aktuell) 관심의 중심에 있을 수 있고, 현행적으로 다루어지는 소통 주제가 될 수 있을 뿐이다.”(Luhmann, 2008: 29; 루만, 2002: 37) 이것이 “소음에서 질서”로의 전환이 비개연적인 이유이다.

여기서 “소음에서 질서”로 전환의 비개연성과 함께 주목해야 할 점이 또 하나 있다. 환경 소음이 한 사회체계 내부에서 교란으로 고려되고 주제로 다루어졌을 경우, 그것은 그 체계의 기능과 코드에 의해, 즉 체계 내부의 정보처리 방식에 의해 변환된 것이라는 점이다. 즉 주제는 환경에 속해 있던 상태 그대로 체계 내부로 유입된 것이 아니라 체계의 내부 구조에 따라 구성된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체계의 고유 성과라는 점이다. 사회체계는 주제에 근거하여 환경의 자원을 지시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타자 지시는 체계 자신의 작동 결과로서 나타나는 자기 지시일 뿐이다. 루만은 이점을 물리학의 공명(Resonanz) 개념에

비유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기 지시적으로 폐쇄된 체계는 환경을 통한 투입의 특화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차이이다. 오히려 환경에 있는 것들 또는 환경의 사건들은 단지 교란이나 방해 또는 소음으로서 체계 내부로 유입될 뿐이며, 그후에야 비로소 체계 내부의 고유 구조에 따라 스스로 특화된다. 이것은 물리학적 개념인 공명이 뜻하는 바와 다르지 않다. 이에 따르자면 체계는 지속적으로 환경을 차단하며 단지 자신의 고유한 주파수에 맞추어 공명할 뿐이다(Luhmann, 1995: 74).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체계의 공명은 한편으로 환경의 특정 교란과 방해에 대한 체계의 순응과 관심이자 동시에 그 이외의 모든 교란과 방해에 대한 저항과 무관심이다. 다른 한편으로 특정 체계에서 특정 주제에 대한 공명이 생겨났다면 그 주제는 체계 내부의 구조에 따라 변환된 것이지 환경에 있었던 그대로의 원재료가 아니다. 예를 들면 도덕적 사건이 경제 체계의 주제가 되었다면 이것을 단지 지불/비지불이라는 이항 코드의 관점에서 주제가 된 것일 뿐이다. 기능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주제는 필연적으로 경제적 지불 능력의 극대화에 기여해야만 한다. 만일 스포츠 경기에서의 승리가 정치 소통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면 이 주제 역시 성공 경력이나 정당의 위신 또는 평판을 염두에 둔 맥락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권력 유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2. 예외로서 위기 주제

대부분의 주제는 체계에게 환경 소음이며 무관심의 대상이다. 환경 소음에 속해 있는 주제들 가운데 어떤 것이 사회의 기능 체계들로 하

여금 각기 고유한 공명을 만들어내도록 하고, 각 체계의 내부에서 고유한 기여를 만들어내도록 하며, 이러한 기여가 연쇄적으로 쏟아지도록 자극할까? 이 물음에 정확하게 답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적 경험을 통해 각기 고유한 주파수를 지니고 있는 사회의 기능 체계들에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반복해서 동조하는 주제가 있다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위기 주제가 그것이다. 루만은 이러한 연관에서 “테크놀로지의 발달이 부수하는 문제나 생태학적인 문제 …… 그리고 그 이외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같이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 매우 강력하고 빠르게 반응하는 사회의 소통의 민감성”(Luhmann, 1997: 1096~1097; 루만, 2012: 1252~1253)은 경험적으로 충분히 관찰되어왔다고 말하였다. 이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의 기능 체계들은 위기 관련 주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한 예로 10대 청소년의 위기로 거론되고 있는 “성폭력”이라는 주제를 살펴보자. 정치, 경제, 교육, 법, 종교 등과 같은 사회의 주요 기능 체계들은 한결같이 이 주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이것을 지속적으로 소통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홍성수는 “성폭력”이라는 주제에 대한 기능 체계들의 높은 친화력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끔찍한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되풀이되는 스토리가 있다. “사형시키자!” “거세시키자!” 범죄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 이제 언론이 나선다. 언론은 선정적인 보도로 시민들의 분노를 더욱 자극하고, 괴물들을 사회에서 격리시키자고 선동한다. …… 성범죄는 정치권에도 호재다. 대중의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정치가 나서 강경 대응을 천명한다. “사형 집행을 검토하겠습니다!” “물리적 거세 법안을 제출하겠습니다!”(홍성수, 2012: 80)

홍성수는 성폭력이라는 위기적 주제에 대한 시민, 언론, 정치의 반응만을 언급했지만 경제, 교육, 학문 같은 기능 체계들도 이 주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경제는 광고(대개 문제 해결 기술이 내장된 스마트폰 같은 상품의 광고)를 통해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줌으로써 이 주제에 관심을 표명하고, 교육계는 성희롱 및 성폭력 교육을 강화해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학문은 성폭력 문제의 원인 및 해결책과 관련된 각종 기여들을 쏟아낸다.

이와 같이 사회의 주요 기능 체계들은 위기 주제에 강한 친화력을 보이며, 이 주제를 기꺼이 소통의 대상으로 삼는다. 환경 소음이 관찰을 통해 사회적 실재로 구성되고, 구성된 실재의 구성적 성격이 비가시화되면서 그것은 실제적 실재로 탈바꿈된다. 이렇다 보니 현대사회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위기가 실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주위에서 많은 종류의 위기들을 관찰할 수 있다. 공교육 위기, 경제 위기, 정치 위기, 환경 위기, 인문학 위기, 사회학 위기, 역사교육 위기 등 위기 소통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현대사회는 사회의 자기 관찰에서 위협과 위기로 가득한 ‘위험사회’ 또는 ‘위기사회’로 나타나게 된다. 루만은 이 같은 현대사회의 자기 관찰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재생할 수 없는 자원의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자기생산적 대체물의 의존성이 증대하며, 더 나아가 지속적인 생물학적 진화의 전제 조건인 다양한 종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볼 수 있다. 또한 어떤 의약품으로도 면역되지 않는 병원체의 진화, 잘 알려져 있는 환경오염의蔓延, 그리고 중국적으로는 지구상의 인구 폭발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오늘날 사회적 소통의 주제들이다. …… 오늘날의 사회처럼 자기 자신에게 경종을 울린 적이 과거에 언제라도 있었던가!(Luhmann, 2008: 9; 루만, 2002: 11~12)

루만의 말처럼 현대사회는 부단히 자신을 위기 사회로 관찰하며, 자신에게 경고하는 사회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현대사회의 기능 체계들은 부단히 위기에 관한 소통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위기를 구성해낸다. 이런 의미에서 위기 주제는 소통 체계들의 주제에 대한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주기적으로 그리고 우연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충족시켜주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위기 주제는 이목이 부족한 곳에 이목을 집중시켜준다(Luhmann, 1970: 10). 위기 주제는 그 기능과 성과의 달성을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제한된 공명 능력”(Luhmann, 1995: 74)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그런 맥락들에서 귀를 기울이게 하고 접속되도록 해준다. “모든 사회적 체계에서 위기는 관심을 집중시키는 규칙(Aufmerksamkeitsregeln; attention rule)”(Luhmann, 1970: 12)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 있어서 위기 주제는 예외적인 경우를 지칭한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위기 주제는 소통 주제의 시장에서 소통 체계들이 예외적으로 선호하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V. 맺는말

각 기능 체계는 제한된 공명 능력으로 말미암아 특정한 것에만 배타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관심하지만, 위기 주제에 대해서만은 예외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다. 각 기능 체계가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위기 주제가 문제이자 문제 해결의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위기는 문제이다. 다시 말해 위기의 의미는 사태적 차원, 시간적 차원, 사회적 차원에서 문제로서 나타난다.

의미의 사태 차원에서 위기는 문제들을 지칭하거나, 개별 가치들의 위협 또는 “관행적 요구 수준에서 체계 존속의 위협을 지칭한다. 위기는 수많은 가치의 충족 상태를 대략적이고, 미규정적이며, 시간적 압박 하에서 위태롭게 함으로써 이목을 자극하고 끌어 모은다.”(Luhmann, 1970: 16) 이런 의미에서 위기는 가치 갈등, 즉 관례화되었거나 공포되었거나 확정된 당위 가치들의 상실이나 미달을 지시한다. 위기는 존재와 당위, 상태와 규범의 불일치를 생산한다. 이와 같은 차이 특성으로 말미암아 위기 담론에서는 양적인 것, 수치의 비교, 정도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150만 명의 실업자, 전년도와 비교할 때 3% 감소한 경제성장률, 대학 입학시험 응시자 비율의 50% 감소, 빙하 해빙에 따른 해수면 상승 정도 등에 나타난 양적인 것, 정도 등을 통해 위기의 존재는 확실성(Gewissheit)을 부여받게 된다. 한편 위기 소통에서 위기의 확실성과 함께 이목을 끄는 것은 문제 해결의 불확실성(Ungewissheit)이다. 즉 양적인 것을 통해 확정된 위기의 존재는 확실하지만 그 문제의 해결 가능성은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으로부터 위기의 시간 관계가 도출된다. 위기의 현재는 은밀하게 진행되어온 과거 과정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의미의 시간 차원에서 위기의 현재는 당위 가치의 미달이나 상실로서 나타나고, 이에 근거하여 시급한 문제 해결을 강제한다. 어떤 조처든 취해져야만 하며, 시급히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현재의 위기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미래의 위기도 시간적 지연을 감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위기 소통에서는 시간의 급박성을 강조하기 위해 종종 ‘시한폭탄’ 같은 수사학적 은유가 동원된다. “은유는 공통점이 없는 두 대상 사이의 연결 고리를 형성하는 작업이다.”(김영욱, 2008: 339) 예를 들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부채 많은 공기업, 뇌혈관 질환, 비만 청소년 등의 주제가 시한폭탄에 비유되고

있다. 시한폭탄은 언제 터질지 모른다. 시간이 없다. 문제 해결을 위해 급박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시한폭탄을 해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위기의 확실성은 언제나 그 해결 가능성의 불확실성을 동반한다. 제도, 기업, 건강 같은 위기의 대상은 원인과 결과의 선형 논리로 파악 가능한 “사소한 기계(triviale Maschinen)”(Foerster, 2003: 60)가 아니다. 따라서 확실한 해법은 없다. 모든 해법은 결핍된 해결 방법을 희망으로 보충하고, 그 희망을 매개로 삼아 미래로 투사될 뿐이다. 이렇게 사태 차원에서 형성된 위기의 차이 의미론은 시간 차원의 의미론으로 번역된다. 과거는 당위가치를 나타내며, 위기의 현재는 그것의 미달 또는 상실을 나타낸다. 미래는 두 발전 가능성에 열려 있다. 차이가 첨예화될 수도 있고 해소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시간 의미론적 규정을 통해 위기 개념은 진단적 내용뿐만 아니라 예언적 내용까지도 포함하게 된다. 그렇다면 위기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일까?

의미의 사회 차원에서 위기는 “사회 구성원 다수의 눈에(in den Augen eines relevanten Teils der Gesellschaftsmitglieder)”(Thiel, 1996: 37) 위기로서 나타난다. 위기가 사회 구성원 다수의 눈에 위기로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다수가 동일한 현상을 비교적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예컨대 문제가 있거나 위협적인 상황으로 인식한다는 가정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위기는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위기의식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위기 경험으로 귀결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위기의식의 출발점은 “다수 행위자들의 높은 당혹감(hohe Betroffenheit vieler Akteuer)”(Meier & Slembeck, 1998: 223)이다. 직장인 가운데 실직을 우려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경기 불황에 대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위기의 사회적 차원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위기가 다수 사회의 기능 체계들에서 사태적으로 가치 차

이로서, 시간적으로 긴급하게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위협으로서 소통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위기 의미의 세 차원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위기의 생성과 확산은 소통 체계들의 기능-특수적, 코드-특수적, 프로그램-특수적 공명의 결과라는 점이다. 사회의 맥락에서 위기가 관건이 되었다면 수백만의 의식 체계들에게 그것이 중요한지 아닌지 또는 그 위기가 객관적이며 인지 가능한 사실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하천의 물고기가 수질오염으로 폐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연평균 기온이 꾸준히 상승할 수도 있으며, 극지방 빙하의 해빙 정도가 빨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소통의 주체가 되었을 때야 사회의 관찰자들에게 (환경) 위기로서 관찰될 수 있다. 사회는 오직 소통을 통해서만 관찰하기 때문이다(Luhmann, 2008: 41; 루만, 2002: 54).

만일 사회체계가 자신과 관계가 있는 환경을 오직 소통을 매개로 해서 인식하고, 이러한 연관에서 위기가 관찰하는 소통의 주체로서 인정받았다면 이 위기 현상은 이중적 의미에서 소통의 실체이다.

한편으로 위기 주체는 오직 소통을 통해서만 사회 내부로 유입되며, 이 과정에서 체계 내부 구조의 기준에 따라 고유 정보로 합성된 실체이다. 소통은 언제나 자신이 지칭한 것만을 생산하기 때문에 지칭된 위기 주체는 필연적으로 관찰하는 체계의 고유한 성과일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위기는 환경에 있던 원래의 자료, 환경에서 일어난 사태 그 자체가 아니다. 그것은 관찰 작동, 즉 구별의 틀 내에서 지칭의 작동과 관련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위기 주체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즉 관찰이 소통을 매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소통의 실체이다. 그러므로 위기 주체는 작동적 관점에서 체계 형성과 체계 유지의 실재를 증명해주고 보장해준다.

사태적, 시간적, 사회적 문제 복합체로서 위기는 구조적으로 제한적

인 공명 능력만을 지닌 사회에서 이목을 끌 수 있는 가능성을 활용한
다. 위기는 주체의 인지 과정이나 경험의 대상이 아니라 소통의 주체
로서 이와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

위기 주제는 사태 차원에서 사회의 주요 기능 체계들에 직접, 간접
으로 해당되며, 그것들의 존속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문제이며, 시간
차원에서 결정과 행위의 필연성을 주목하게 만드는 문제이다. 사회와
사회 기능 체계들이 위기 주제에 그렇게도 쉽고, 빈번하게 동조하는
이유는 바로 위기 주제가 지닌 이와 같은 문제적 성격 때문이다.

이와 같은 위기 주제의 문제적 속성은 '존속이라는 체계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위기 주제는 당혹감을 유발시
켜 이목을 끄는 그 문제적 속성으로 말미암아 체계 주체로 쉽게 선택
되고 체계들의 문턱을 쉽게 넘어간다. 즉 위기 주제는 그 문제적 성격
에 힘입어 후속 기여들, 후속 소통의 접속을 역동적으로 촉진시켜줌으
로써 존속이라는 사회의 중심 문제를 해결해준다. 이렇듯 기능적 관점
에서 볼 때 위기는 문제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체계의
존속과 관련된 다른 차원의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의
속성도 지닌다. 이 점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 앞에서 도입한 소통
주체와 소통 주체의 기능의 구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와
사회 소통 체계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는 존속, 즉 소통의 지속적
자기생산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기능적 시각에서 볼 때 위기 주제는 언제나 그리고 당연히 가능한
해결들(즉 다른 주제)⁸⁾의 대안 공간에서 단지 하나의 특정한 의미 선
택을 지칭한다. 위기 주제는 다중 담론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

8) 전적으로 체계이론적 등가기능주의의 의미에서 그렇다. 루만(Luhmann, 1973: 236)
에 따르면 기능들은 "성취가 기능적으로 등가인 다른 성취 가능성들과 비교되는
그러한 관점들에 대한 성취들의 관계들을 지칭한다."

에, 다시 말해 다수 사회적 관찰자들의 고유한 주과수들을 규칙적으로,
그리고 비유하자면 길게 숨을 쉬면서 동조시켜 주기 때문에 다수의 주
요 사회체계들이 선호하는 상품이 된다. 그런 이유에서 위기 주제는
사회학자들에게도 매력적인 주제가 된다. 우리는 이상의 논의를 통해
위기 주제에 대한 높은 관심은 그것이 지닌 사회, 시간, 사태 차원의
문제 잠재력뿐만 아니라 동시에 체계 존속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잠재력 때문이라는 역설적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렇게 위기 주제는 문제의 잠재력과 문제 해결의 잠재력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다수 기능 체계들에게 쉽게 주목받으며,
빈번하게 소통된다. 루만의 체계이론적 관점에서 실재는 관찰의 실재
이고, 소통의 실재이기 때문에 관찰되고 있는 위기, 소통되고 있는 위
기는 사회에서 실재하는 위기로 나타난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위기
의 관찰, 위기의 소통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위기의 실재
도 그만큼 많아지게 된다. 이것이 현대사회에서 "위기"가 범람하는 이
유이다.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볼 수 있었던 루만의 이론은 현재 우리 사
회에 만연하고 있는 위기들에 대한 해법을 제공해주는 이론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위기가 사회적 관찰자들에 의해 우연적으로 구성된 위기
이며, 소통의 위기일 뿐이라는 점을 일깨워준다. 나아가 사회적 관찰
자들이 위기를 앞 다투어 주제화하는 이유는 그것이 이목을 집중시키
는 문제적 속성뿐만 아니라 기능 체계들의 존속 문제를 해소시켜주는
문제 해결적 속성을 지니기 때문이라는 점을 드러내준다. 결국 루만
이론은 우리로 하여금 위기 자체가 아니라 어떤 것을 위기로 관찰하는
관찰자와 그가 그것을 위기로 관찰하는 이유에 주목하게 만들어준다.
1차 관찰자의 관점에서 위기를 진단하고 그 해법을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2차 관찰자의 관점에서 위기의 기능에 주목하게 해주는 것이

다. 루만의 이론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 대안 없는 이론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오히려 위기 소통의 무차별적 공세 앞에서 쉽게 동요하는 대중과 사회에 유연성 의식을 가져다줌으로써 위기적 사태들에 비교적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강한 실천적 의미를 지닌 이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루만의 통찰은 만두 파동, 김치 파동, 신종플루 파동 등 각종 위기적 사태들에 직면하여 너무나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너무나도 쉽게 동요해온 우리 사회의 경험을 되돌아 볼 때 시사해주는 바가 적지 않다.

참고 문헌

김영옥, 2008, 『위험, 위기 그리고 소통』,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김홍중, 2012, 「리뷰: 칸트의 가면을 쓴 니체」, 『계간 문학동네』 73: 443~454.
 노진철, 2004, 「위험사회학: 위험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사회이론화」, 『경제와 사회』 63: 98~123.
 노진철, 2010, 『불확실성 시대의 위험사회학』, 한울 아카데미.
 루만, 니클라스, 2002, 『현대사회는 생태학적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가?』, 이남복 옮김, 백의.
 루만, 니클라스, 2006, 『대중매체의 현실』, 김성재 옮김, 소통북스.
 루만, 니클라스, 2012, 『사회의 사회』, 장춘익 옮김, 새물결.
 박춘서, 2012, 「구성주의 시각에서의 위험 소통의 논리: 구성주의 위험저널리즘 모색을 위하여」, 『언론과학연구』 12(3): 170~200.
 베르크하우스, 2012, 『쉽게 읽는 루만』, 이철 옮김, 한울아카데미.
 송해룡·김경희, 2012, 「'위험'에 관한 인문학적 고찰: 루만의 소통이론을 중심으로」, 『혜세연구』 27: 187~202.
 유상덕, 2001, 「진단과 대안: 공교육의 위기와 극복 방안」, 『한국교육연구소소식』 54: 39~46.
 장경훈, 2009, 「글로벌 금융 위기의 원인과 대책」, 『CFE 프리넷 시장경제컬럼』

(2009/11/02).
 정성훈, 2009, 『루만의 다차원적 체계이론과 현대사회 진단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청구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하대청, 2011, 「광우병 위협의 사회적 구성: 사회기술적 구성물로서의 SRM과 '과학 실행 스타일' 속 MM형」, 『ECO』 15(2): 225~268.
 한미라, 2009, 「현대 공교육의 위기 극복을 위한 칼뱅의 교육사상 이해」, 『현상과 인식』 33(3): 144~165.
 홍성수, 2012, 「시사에세이: 괴물을 없애는 방법」, 『시사IN』 제261호 (2012/9/15): 80.
 Bette, K.-H. and U. Schimank, 1995, *Doping im Hochleistungssport. Anpassung durch Abweichung*, Frankfurt am Main: Suhrkamp.
 Foerster, H. V., 2003, "Entdecken oder Erfinden. Wie läßt sich Verstehen verstehen", pp. 41~88 in *Einführung in den Konstruktivismus*(7. Auflage), edited by H. Gumin and H. Meier, München: Piper.
 Kieserling, A., 1999, *Kommunikation unter Anwesenden. Studien über Interaktionssysteme*, Frankfurt am Main: Suhrkamp.
 Luhmann, N., 1970, "Öffentliche Meinung", *Politische Vierteljahresschrift* 11: 2~28.
 Luhmann, N., 1973, *Zweckbegriff und Systemrationalität*, Frankfurt am Main: Suhrkamp.
 Luhmann, N., 1984, *Soziale Systeme. Grundriß einer allgemeinen Theorie*(6. Aufl.), Frankfurt am Main: Suhrkamp.
 Luhmann, N., 1987, *Soziologische Aufklärung Bd. 4. Beiträge zur funktionalen Differenzierung der Gesellschaft*(2. Aufl.),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Luhmann, N., 1995, "Die Soziologie und der Mensch", pp. 12~24 in *Soziologische Aufklärung*(Bd. 6), edited by N. Luhmann,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Luhmann, N., 1996, *Die Realität der Massenmedien*(2., erw. Aufl.),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Luhmann, N., 1997, *Die Gesellschaft der Gesellschaft*, Frankfurt am Main: Suhrkamp.
 Luhmann, N., 2008, *Ökologische Kommunikation. Kann die moderne Gesellschaft sich auf ökologische Gefährdungen einstellen?*(5. Aufl.),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Meier, A. and T. Slembeck, 1998, *Wirtschaftspolitik: kognitiv-evolutionärer Ansatz*(2.,

überarb. Aufl.), München: Oldenbourg.

Schimank, U., 2000, "Ökologische Gefährdungen, Anspruchsinflationen und Exklusionsverkettungen - Niklas Luhmanns Beobachtung der Folgeprobleme funktionaler Differenzierung", pp. 125~142 in *Soziologische Gegenwartsdiagnosen I. Eine Bestandsaufnahme*, edited by U. Schimank and U. Volkmann, Opladen: Leske & Budrich, S. 125~142.

Thiel, F., 1996, *Ökologie als Thema: Überlegungen zur Pädagogisierung einer gesellschaftlichen Krisenerfahrung*, Weinheim: Deutscher Studienverlag.

[Abstract]

**The Social Function of Crisis-Theme:
Under the Perspective of Niklas Luhmann's
Social System Theory**

Song, Hyeong-seok. Keimyung University

Körner, Sven. Deutsche Sporthochschule Köln

The theme of crisis has been communicated at regular intervals in the modern society. It is very interesting to see that functional systems of the modern society, which have a limited resonance capability, actively turn to the crisis theme. Under the perspective of Niklas Luhmann's theory of social systems the reason for this clear: crisis as a theme of communication has not only the problem quality but also the quality of problem solution. On the one hand, its problem quality lies within the fact, that the communication of crisis causes social consternation and attracts public attention. In the factual dimension, crisis as a theme of communication reveals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by pointing out differences between ought and fact. Within the time dimension crisis

flags out the urgency of decision-making as well as the need for proper solutions, whilst crisis in the social dimension reminds it's probable exposing to the most of the public. Crisis communication indicates the certainty of crisis as a problem and the uncertainty of it's solution. In this way, crisis theme causes anxiety and consternation among the public. On the other hand, the quality of problem solving lies within the fact, that crisis as a theme of communication secures the future of society by continuing its basic operations. Society is communication, and communication is the event, which disappears at it's emergence-moment. For the continuous existence of society, a following communication has to be attached to the previous one. In terms of systems theory, the auto-poiesis of communication has to be continued. Auto-poiesis is framed by structure and theme performs as a function of structure. Contributions are conditioned by themes and vice versa. In this way, theme is able to make the communication process more dynamic. Based on themes, contributions can be selected clustered, switched and memorized. Whilst communication systems in the modern society are indifferent to the most of environmental events (they are yet noises) and resonance is strictly executed among internal criteria, the crisis theme appears to be an exceptional case. Crisis can easily exceed the threshold of indifference due to it's quality of problem. By causing public consternation crisis theme, in terms of Niklas Luhmann, come into play as a highly frequented "attention rule". From the perspective of system theory, the concept of reality is regarded as an observed reality, a reality of communication. In this way, crisis as a theme of communication is able to contribute to the existence of society through the dynamic promotion of the communication that joins to other communication.

송형석은 독일 쾰른 체육대학(Deutsche Sporthochschule)에서 스포츠철학 논문으로 체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계명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공저로 『체계이론과 체육학』(2012)이, 논문으로 「스포츠철학의 방법으로서 관찰자의 관찰」(2013)이 있다. 전공분야는 스포츠철학, 스포츠사회학, 무도철학 등이다. E-mail: hssong@kmu.ac.kr

스벤 코르너(Sven Körner)는 독일 다름슈타트 공과대학(TU Darmstadt)에서 루만의 체계이론 관련 논문으로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독일 쾰른 체육대학의 교육학 및 철학 연구소 주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Höher - schneller - weiter. Gentechnologisches Enhancement im Spitzensport* (2012) 등이 있다. E-mail: koerner@dshs-koeln.de

[2014. 10. 16. 투고; 2014. 11. 07. 수정; 2014. 11. 12. 채택]

소통의 시대에 생각하는 불통(不通)의 사회학: 니클라스 루만의 커뮤니케이션 개념, 그 사회이론적 함의에 대한 시론**

천선영

[국문 초록]

우리 사회의 화두 중 하나는 소통이다. 다른 말로 그것은 우리가 '불통'이라는 '문제'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상황 이해 속에서 본 논문은 니클라스 루만 이론 전체를 끌어가는 방법론적 도구이자 핵심적 개념인 커뮤니케이션의 사회이론적, 나아가 실천적 함의를 시론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 글의 핵심적인 주장은 그의 커뮤니케이션 개념이 우리 시대의 소통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 탁월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놓는다는 점에

* 이 글의 제목은 물론 아주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소통/불통의 맥락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정확하게 루만식으로 다시 이야기하자면 커뮤니케이션이 불통을 하나의 문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뒤에서 계속해서 설명되겠지만, 이렇게 루만의 커뮤니케이션 개념은 우리의 일상적 개념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 그 자체로 '불통'을 결과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쓴이는 이런 루만의 다른 커뮤니케이션 개념이 '결과적'으로 이 시대의 '소통/불통 문제'를 지금과는 다른 시각에서 성찰하고 보다 나은 해결책을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 2012학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이다. 여전히 남아 있을 부족함이 마음에 걸리지만, 여러 선생님들의 토론과 논평을 통해 글을 보다 정확하게 쓰는 데 큰 도움을 받았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